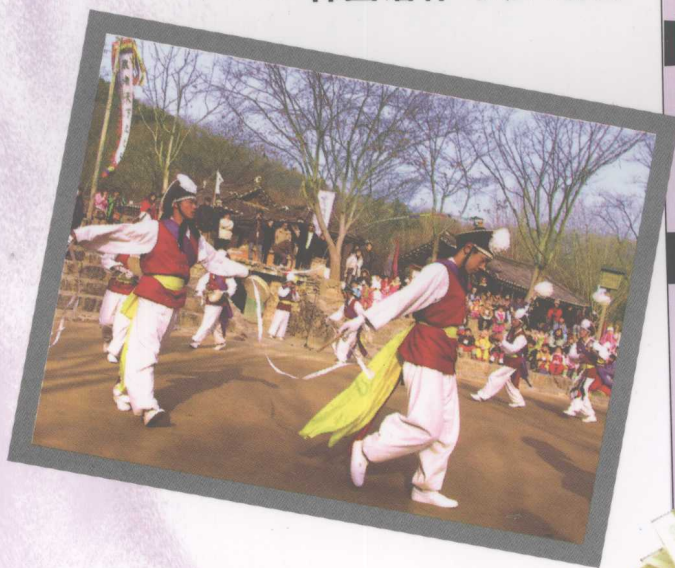


轻松学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가나다 韩国语补习班 编著



韩语2

高级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轻松学韩语

高级 2

가나다 韩国语补习班 编著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版权登记号：01-2005-6219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轻松学韩语. 高级2 / 가나다韩国语补习班编著.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6.4
ISBN 7-301-07956-7

I. 轻… II. 가…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04353号

本书获得韩国 LANGUAGE PLUS 授权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 (不包括香港、澳门特别行政区及台湾地区) 出版发行



가나다 한국어 학원

☎ 02-332-6003/Fax 02-332-6004

<http://www.ganadakorean.com>

ganada@ganadakorean.com

GANADA KOREAN LANGUAGE INSTITUTE is the first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Korea since 1991, to be the only qualified, private school dedicated exclusively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가나다, KOREAN> was created by GKLI s staffs.

书 名: 轻松学韩语 (高级2)

著作责任者: 가나다 韩国语补习班 编著

责任编辑: 张进凯

标准书号: ISBN 7-301-07956-7/H · 1214

出版发行: 北京大学出版社

地 址: 北京市海淀区成府路205号 100871

网 址: <http://cbs.pku.edu.cn>

电 话: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53334

电子邮箱: zpup@pup.pku.edu.cn

排 版 者: 北京渲染人图书设计中心 13381128105

印 刷 者: 北京大学印刷厂

经 销 者: 新华书店

787毫米×1092毫米 16开本 16.75印张 400千字

2006年4月第1版 2006年4月第1次印刷

定 价: 33.00元



한국은 그동안 사회 여러 부문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속에서 그 위치와 역할을 주목받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들의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다 한국어 학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 교수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강사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한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설립 이래 효과적인 교재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이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나다 KOREAN』 한국어 시리즈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가나다 한국어 학원의 『가나다 KOREAN』 시리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어휘와 유형의 난이도, 사용 빈도에 따라 구성되었고, 실생활과 한국의 문화를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초급 1, 2는 기본적인 한국어의 발음과 어휘,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 1, 2는 좀 더 다양한 어휘와 유형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1, 2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시사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분들이 이 교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급 1, 2와 중급 1, 2는 영어판과 일본어판, 중국어판 모두 세 종류로 출간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모아 펴내는 이 책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집필진은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방만한 자료가 책으로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신 랭기지플러스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3월

가나다 한국어학원 교재 연구부



이 책은 고급 단계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나다 한국어 학원의 학사 일정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9개의 주제 하에 모두 28과로 이루어져 있고, 각과는 대화, 단어, 문법, 유형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현대 한국인들이 구사하는 일상 회화나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는 본문의 대화 중 기출 단어를 제외하고 새로 나온 단어를 수록하였으며 주요 단어에는 학습을 돕고자 보기 문장을 넣었습니다.

문법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와 사용 방법, 사용상의 제약 등이 설명되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 문장도 실었습니다.

유형 연습은 주요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 응답 연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해 봅시다'와 '읽어 봅시다'를 실어 표현력을 기르고 배운 어휘와 유형을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단어 색인과 문법 색인을 넣어 알고 싶은 단어와 문법을 본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록으로 CD를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본문과 유형 연습 부분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차례

머리말 · 1

일러두기 · 2

I. 큰일 났네 · 7

제1과 도대체 무슨 가방이길래 그래요? ————— 8

제2과 이렇게 폭설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 14

제3과 아예 데굴데굴 구를 정도였다 ————— 20

·해 봅시다/26

·읽어 봅시다 불길 속으로/27

II. 한국의 풍습 · 31

제4과 함 사세요. 함이요! ————— 32

제5과 중요한 날이니만큼 부정 타지 않게 잘해 ————— 38

제6과 아직 종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셈이죠 ————— 44

·해 봅시다/51

·읽어 봅시다 5명 중 1명이 김 씨/52

III. 살아 있는 말 · 55

제7과 입에서 살살 녹아요 ————— 56

제8과 한 번쯤 의문이 생길 법한 질문인걸요 ————— 62

제9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 68

제10과 말이라는 것도 유행이랑 비슷하군요 ————— 76

·해 봅시다/83

·읽어 봅시다 ㉠ 말에 대한 두 가지 생각/84

㉡ 일림/87

IV. 이런 사람, 저런 사람 · 91

제11과 이왕 도시를 떠날 바에야 ————— 92

제12과 그나마 내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인데 ————— 98

제13과 알뜰하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장학금으로 ————— 104

·해 봅시다/110

·읽어 봅시다 김덕수/111

V. 냄새, 소리, 모양 · 115

제14과 은뭉이 썬시다 못해 앓아누울 지경이야 ————— 116

제15과 몸속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이에요 ————— 122

제16과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 128

·해 봅시다/134

·읽어 봅시다 된장찌개 휴대 전화 / 135

비닐 우산 / 136

VI. 한국의 자연, 문화재, 특산물 · 139

제17과 돌탑은 자신의 비밀과 신비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140

제18과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애태우고 있던
차에 ————— 146

제19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달리 강해서 ————— 152

·해 봅시다/158

·읽어 봅시다 ① 울릉도 / 160

② 한국의 동물 / 163

VII. 날씨와 생활 · 167

제20과 꽃샘추위라던데 —————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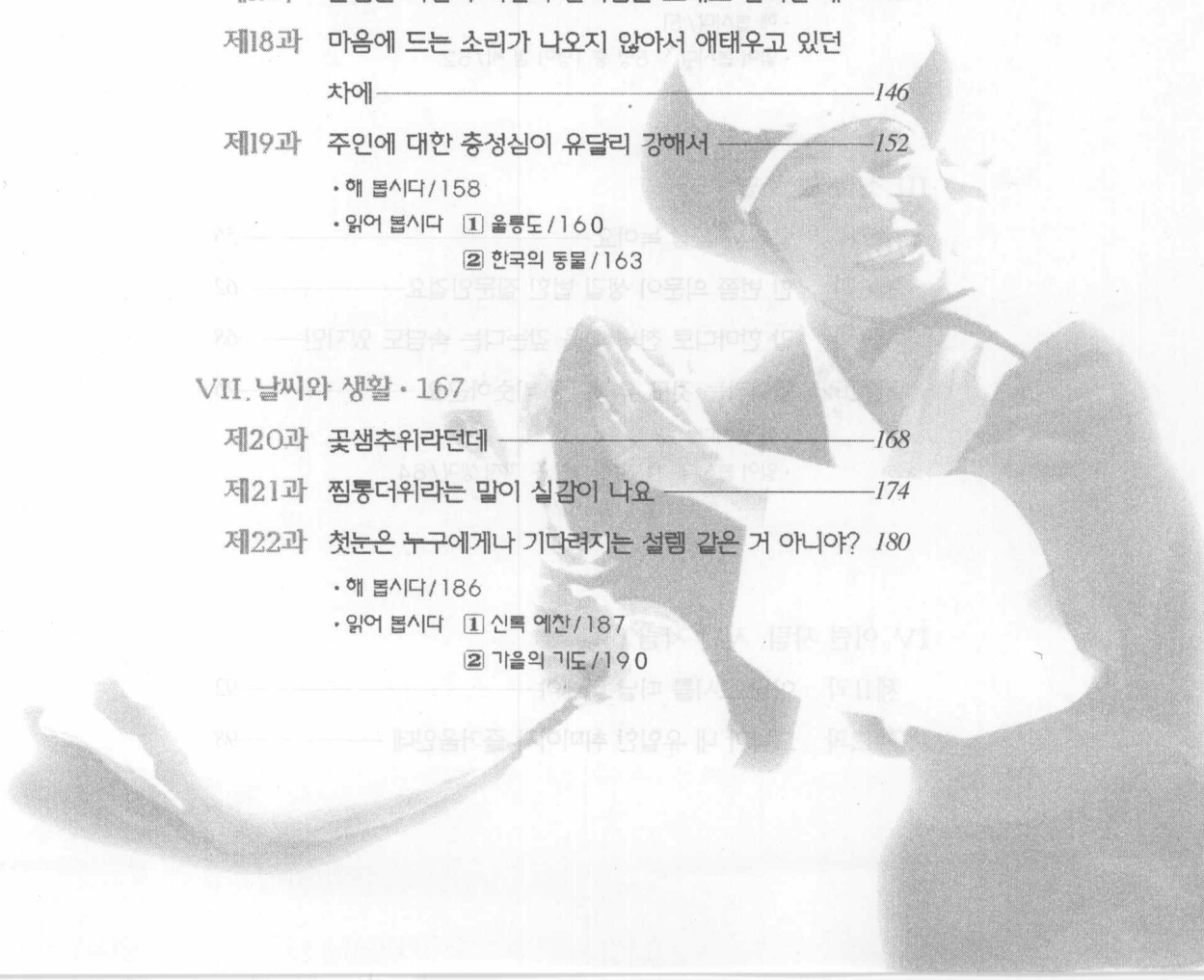
제21과 짐통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 174

제22과 첫눈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설렘 같은 거 아니야? 180

·해 봅시다/186

·읽어 봅시다 ① 신록 예찬 / 187

② 가을의 기도 / 190



VIII. 사랑과 우정 · 193

제23과 소문난 잉고 부부예요 194

제24과 친구가 좋기는 좋구나 202

제25과 나그네의 고독과 군중 속의 고독 210

- 해 봅시다/216
- 읽어 봅시다 ① 돌아온 탕아/218
- ② 첫사랑/222

IX. 꿈과 희망 · 225

제26과 고생 끝에 낙이 오고 226

제27과 그까짓 나이가 무슨 문제겠어요? 232

제28과 해돋이를 보니까 가슴 벅차기가 이를 데가 없는걸 238

- 해 봅시다/244
- 읽어 봅시다 작심삼일/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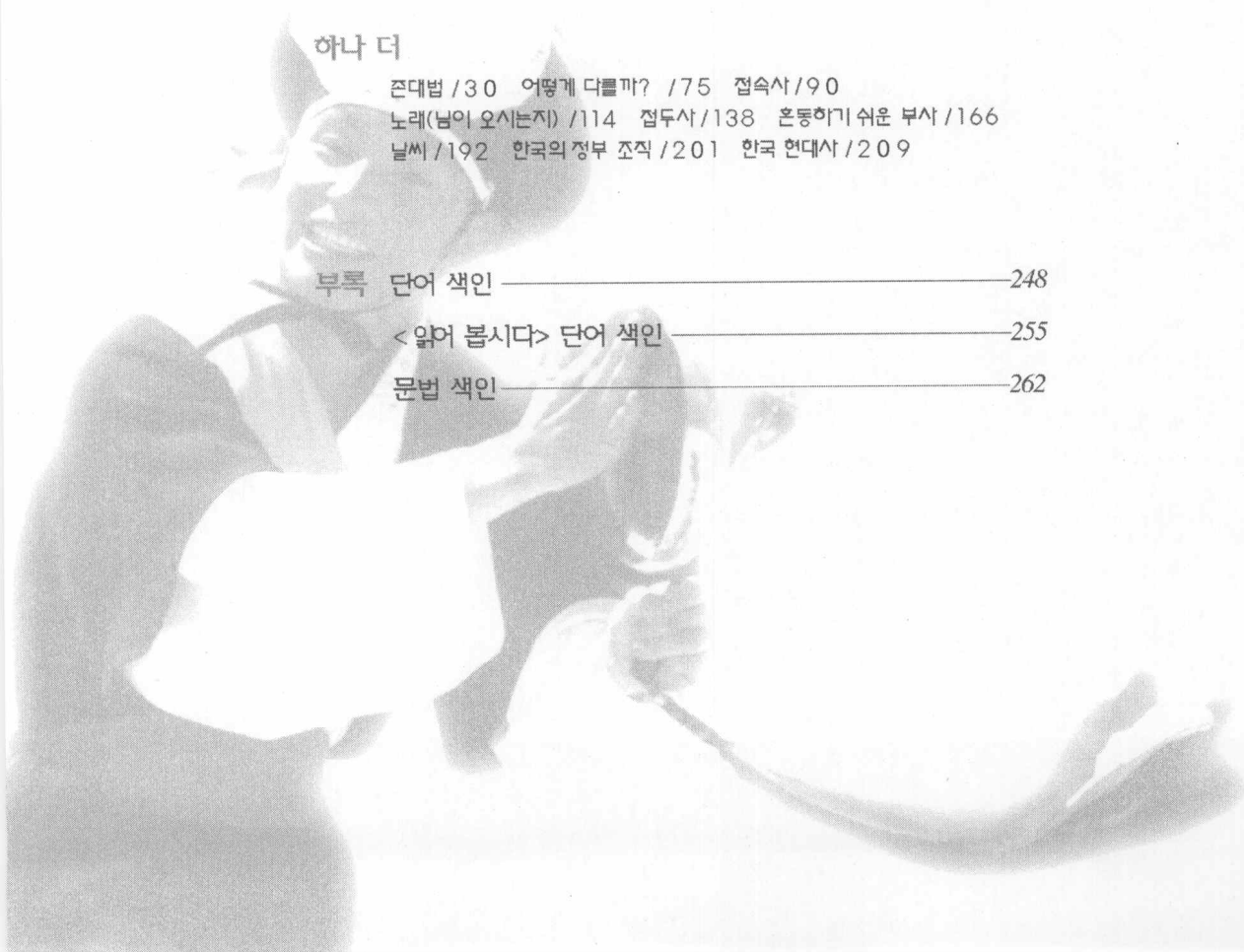
하나 더

존대법/30 어떻게 다를까? /75 접속사/90
 노래(남이 오시는지) /114 접두사/138 혼동하기 쉬운 부사/166
 날씨/192 한국의 정부 조직/201 한국 현대사/209

부록 단어 색인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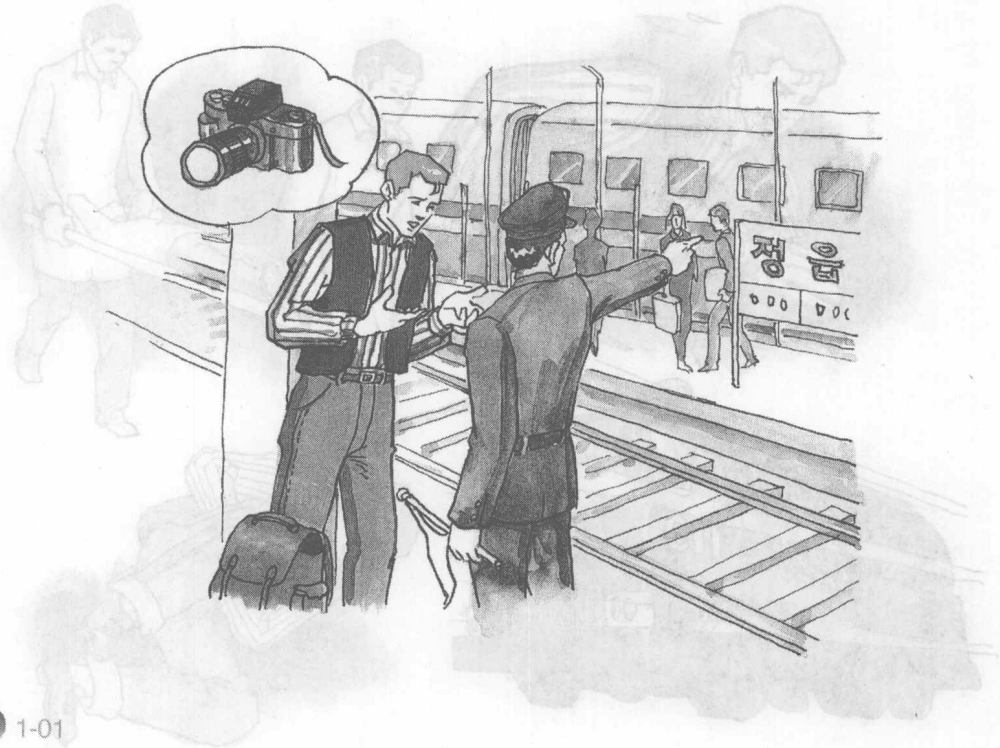
<읽어 봅시다> 단어 색인 255

문법 색인 262



제 1 과

도대체 무슨 가방이길래 그래요?



1-01

촬영차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작업을 하느라고 며칠 밤을 자는 등 마는 등 해서 기차를 타자마자 정신없이 꿀아떨어졌다. 그러다가 정읍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길래 허둥지둥 짐을 챙겨 내렸다. 아뵘싸, 내 카메라!

(역무실로 헐레벌떡 뛰어가더니)

콜린 : 아저씨, 가방을 기차 선반 위에 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역무원 : 호남선 분실물 보관소로 신고부터 하세요.

콜린 : 그거 못 찾으면 큰일 나는데..... 신고하고 나서 택시 타고 종착역까지 가 볼까 하는데 택시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역무원 : 아마 두 시간 이상 걸릴걸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가방이길래 그래요?

콜린 :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인데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밥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역무원 : 그럼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다음 역이 장성역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연락을 해 봅시다. 혹시 누군가 보고 역무원한테 맡겼을지도 모르잖아요.

콜린 : 고맙습니다. 제발 찾아야 할 텐데.....

단어

- 차 (빙문~, 시업~, 연구~, 조사~, 참석~, 촬영~)

- 자료 수집차 국회 도서관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 강 박사님께 인사차 들르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을까요?

챙기다

- 이 물건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뒀어.
- 저희 집은 워낙 대가족이다 보니 생일이며 기념일만 챙기자고 해도 돈이 적잖이 들어요.

제발

- 제발 부탁이니까 담배 좀 끊으세요.
-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 주세요.

기타

굶아떨어지다, 허둥지둥, 할레벌떡, 밥줄

문법

~는 등 마는 등

화자가 보기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해서 제대로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미 완료된 사실을 말할 때는 ‘~(으)니 등 만 등’, 실현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할 때는 ‘~(으)리 등 말 등’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 보기** 시간이 급한지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몇 손가락 뜨더니 뛰어나가더라.
- 그는 관심이 없는지 보는 등 마는 등 하더라.
- 사정을 해도 들어줄 등 말 등 한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길래

서술어 어간에 붙어 화자가 선행절에 서술한 상황이 직접적인 계기나 이유가 되어 후행절의 동작을 행함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선행절에는 화자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올 수 없고, 후행절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기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보기 길거리에서 하도 싸게 팔길래 하나 샀는데 어때요?
 애가 또 늦게 들어왔길래 제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네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나 혼자 갔지.

~길래~?

'~길래'와 '~기에'는 의문문의 형태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화자가 청자나 제3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보고 그 동작에 대한 이유를 묻는 연결 어미이다. 후행절에 별어진 상황이 예상외의 것이나 보통 이상일 때가 많다. 선행절에는 의문사가 있어야 하고 부사 '도대체'나 '얼마나'와 어울려 자주 사용된다.

보기 어디 가시기에 이렇게 곱게 차려 입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얼마나 공부를 하지 않았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야?

유형 연습

1-02

1 _____는 동 마는 동/(으)ㄴ 동 만 동/(으)ㄹ 동 말 동 _____.

- 가 : 그래도 어제 비로 가뭄이 좀 해갈되지 않았을까요?
 나 : 비가 오는 동 마는 동 와서 가뭄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가 : 벌써 저녁을 드세요?
 나 : 점심을 먹은 동 만 동 했더니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서요.
- 가 : 영업부 직원들은 왜 그렇게 서로 사이가 나쁜 겁니까?
 나 : 글썄 말이예요. 서로 합심을 해도 일이 될 동 말 동 한데 서로 싸움질만 하니 한심해서.

- 4) 문화 센터에서 중국 요리를 배우셨다면서요?
(다니다 / 해서 제대로 못 배웠어요.)
- 5) 사모님 덕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해요?
(아니요, 열심히 해도 붙겠다 / 한데 날마다 태평스럽게 놀기만 해요.)

2 _____ 길래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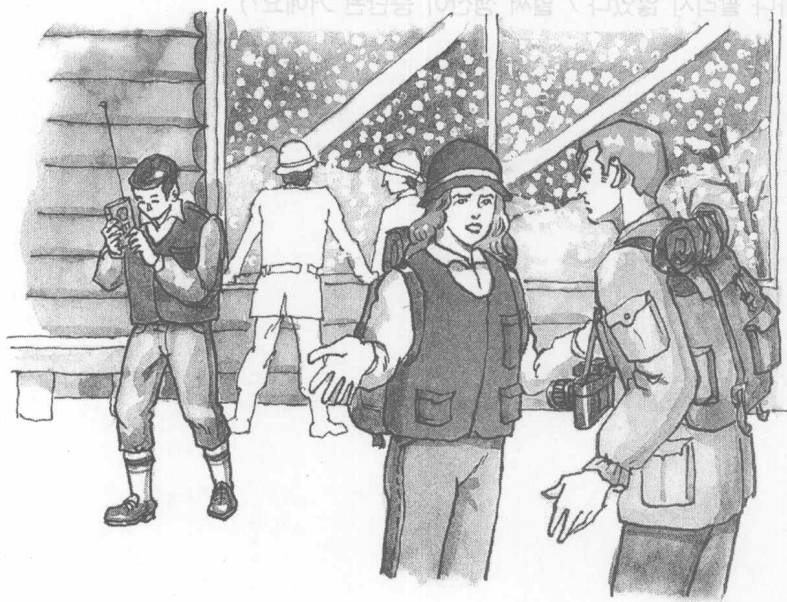
- 1) 가 : 고 차장님 만나 봤어요?
나 : 아니요, 회의 중이시길래 서류만 놓고 왔어요.
- 2) 가 : 여기 있던 떡 누가 먹은 거예요?
나 : 하도 배가 고프기에 내가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 3) 가 : 누가 수리 센터에 전화했어?
나 : 리모콘을 아무리 눌러도 화면이 나오지 않길래 내가 연락했는데.
- 4) 경규한테 뭐라고 하셨나 봐요.
(하도 버릇없이 말하다 / 야단 좀 쳐 줬어요.)
- 5) 어! 아까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더니……
(단추가 떨어졌다 / 갈아입었어요.)

3 _____ 길래 _____ ?

- 1) 가 : 저 내일 입원해요.
나 : 도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입원까지 하는 거예요?
- 2) 가 : 어젯밤에 제가 많이 취했죠.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나요?
나 :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 겁니까?

제 2 과

이렇게 폭설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1-03

콜린 씨 일행은 대구 근처의 주왕산에 들러 사진을 찍고 하산하던 길에 폭설을 만나 급히 근처에 있는 산장으로 몸을 피했다. 거기에는 이미 등산객 십여 명이 대피 중이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데 비 : 누구 라디오 갖고 계시면 좀 켜 보실래요? 이거 눈이 언제 그칠는지 알아야 하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등산객 : 여기 하나 있기는 한데요. 워낙 낡아 빠진 데다가 산속이라 그